

2023년 8월 6일(가해)

#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 (백)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 안드레아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 [ 교황님 기도지향 - 8월 ]



### 복음화 지향 : 세계 청년 대회

리스본에서 열리는 세계 청년 대회에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복음을 실천하고 증언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전례**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입니다. 사도들은 산에서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를 들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줄 때에, 그분의 위대함을 목격한 자로서 그리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빛나는 모습을 체험하고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제1독서**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7,9-10.13-14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었다.>

**화답송** 시편 97(96),1-2.5-6.9(◎ 1ㄱ과 9ㄱ)

◎ 주님은 임금입니다. 온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제2독서** 베드로 2서의 말씀입니다. 1,16-19

<우리는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복음 환호송** 마태 17,5

◎ 알렐루야.

○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1-9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

**영성체송** 1요한 3,2 참조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뵈게 되리라.

**영성체 후 묵상**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위대함을 목격하고 나서 예언자들의 말씀이 더욱 확실해졌다고 전하며, 우리 마음속에서 날이 밝아 오고 새벽이 떠오를 때까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불빛을 바라보듯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자고 권고합니다. 우리 마음이 환해지도록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 오늘의 복음 묵상 - 정용진 요셉 신부 ♣

산의 의미

오늘 복음의 배경은 산입니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되풀이하여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겪으신 유혹의 마지막 장소는 산이었습니다(4,8 참조). 예수님께서 참행복의 말씀을 들려주신 곳도 산이었고(5,1 참조), 굶주린 백성을 위하여 빵을 많게 하신 곳도 산이었습니다(15,29 참조). 복음서 끝에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산에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28,16 참조). 오늘 복음에 나오는 구약의 두 인물도 산에서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을 만나 그분의 계시를 받고 산에서 내려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느님을 만났고 그 산을 내려와 예언자의 길을 당당히 걸어갑니다. 이렇게 산은 인간이 하느님을 내면 깊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여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축일을 지내며 우리도 우리 자신의 '변모'를 희망하며 산에 올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으로 살기를 단념하고 하느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결심을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결심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복을 받아 세속적 의미에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데에만 매여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과 함께 머무르려고 이 '산'에 오르지 않으면 참된 주님의 모습과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산에서 그분을 보았으니 이제 다시 산을 내려와야 합니다. 베드로는 초막을 지어 산에 머물고 싶어 하였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산을 내려오시어 하느님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수행하러 길을 떠나십니다. 성당에서 또 고요한 기도 속에서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는 산을 경험합니다. 지금 우리도 이 산을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주님이신 스승께서 당신의 생명을 쏟으시고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따라 산에서 들은 말씀과 산에서 본 그분의 참모습을 마음에 품고 형제들을 섬기고자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마태 17, 2

His face shone like the sun  
and his clothes became white as light. Mt 17,2



|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성경  
한구절



'주님의 거룩한 변모', 루도비코 카라치 작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마태 17,5).

.....

.....

.....

.....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8월 6일) 의미와 유래**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를 나눈 사건(마태 17,1-9; 마르 9,2-10; 루카 9,28-36)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구세주로서 자신의 신원을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당신께 대한 제자들의 믿음과 확신을 더욱 확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특별히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에서 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년시절을 보냈던 나자렛은 산동네입니다. 주님께서 세례 후 유혹을 당하고, 참행복을 선언하며, 거룩한 신성을 드러내 보이시고, 밤새워 기도하며, 십자가에 매달렸던 곳 모두 산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주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신 장소는 '타보르 산'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변모는 기도 중에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느님과 말씀을 나누는 동안 일어난 일이 세 제자의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은 바로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당신의 구원사업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특별히 어떤 중대한 일을 행하기 전이나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따로 가졌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얗졌다."(마태 17,2)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루카 9,29; 마르 9,3 참조) 세 복음서가 전하는 거룩하게 변하신 모습입니다. 빛은 주님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나온 빛입니다. 주님은 빛에서 온 빛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빛에서 온 빛이신 것은 아버지 하느님과 같은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흰옷은 하늘에 있는 존재, 곧 천사들과 하느님께 선택받은 이들이 입는 옷입니다.(묵시 7,9.13 참조) 그래서 세례성사 때 영세자는 흰옷을 입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의미와 유래 전문] <https://tinyurl.com/5yca3pkj>

**한국 수해 참사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 (2023.7.23. 삼중기도 후)**

교황님께서 지난 7월 23일 주일 정오에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과 순례자들과 함께 삼중 기도를 바치시고, 한국 수해 참사를 비롯하여 고통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모든 이를 격려하셨습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극심한 기후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여러 지역이 비정상적인 폭염에 영향을 받아 참혹한 화재 피해를 입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한국을 덮친 수해처럼 적지 않은 곳에서 갑작스러운 호우와 범람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고통을 겪는 이들, 그리고 희생자와 이재민을 돕고 있는 이들과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타하건대 오염 물질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더욱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저는 거듭 국가 지도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이는 시급한 과제로 미루어 둘 수 없으며, 모든 이와 관련됩니다. 우리 공동의 집을 보호합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 전문] <https://www.cbck.or.kr/Notice/20230349?gb=K1200>

**2024년 캔버라 한인성당 이스라엘-요르단 성지순례 참가자 모집**

[순례성지 및 시기] 이스라엘과 요르단, 2024년 9월 중 10박 11일  
[주관사] 가톨릭여행사 (프로그램 소개링크: <https://url.kr/sh24v3>)  
[참가비] 1인당 525만원 (※ 환율과 예약시점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신청기간] 2023년 7월 16일(주일) ~ 2023년 9월 30일(토)  
[접수 및 문의] 주정자 루치아 (0410 106 633) ※ 6가정(12명) 참가신청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기간] 2023년 9월 3일 시작  
[세례식] 2024년 4월 9일(부활절)  
[일시] 주일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접수 및 문의] 주정자 루치아 (0410 106 633)

**성모 승천 대축일 공동체 미사 안내**

[일시 및 장소] 2023년 8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 아란다 성당 (St Vincent de Paul Church)



|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⑩**  
 포장지가 없거나 거의 없는 제품을 선택하기  
 선물할 때 포장하지 않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⑦**  
 일주일 1회, 대중교통 이용(승용차 요일제)  
 → 39,12kg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

우리 공동체에서는 공동의 집인 지구와 환경생태 보호를 위해 일회용 제품 사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음식나눔, 다과 등의 행사시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안소근 실비아 수녀의 구약 종주**  
 13강 역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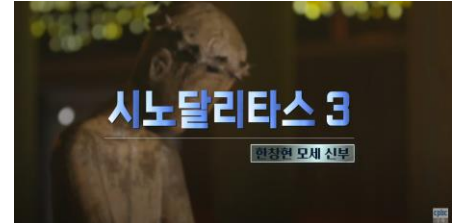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역대기는 유배를 겪은 후,  
 더 늦은 시기를 배경으로  
 과거 역사를 돌아봅니다.

**성경과외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통독 46강]  
 다윗이 권력을 잡은 방법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사무엘기 5부 | 2 사무 1-6 장

**cpbcTV 가톨릭콘텐츠의모든것**  
 한국 교회에서의 시노달리타스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가톨릭 둘레 특강#64  
 한창현 모세 신부  
 성바오로수도회 양성위원장

□ 미사 참례자수

7월 23일	성인 49 아이 19	7월 30일	성인 46 아이 20
--------	-------------	--------	-------------

□ 우리들의 정성 (7월 29일(토)~8월 4일(금))

구민식	권요순	김요한	김정수	남궁영근	서진원	양명식	양홍석
윤현태	이지영	장호훈	전인철	조성희	주정자	허준	
교무금 \$880 (15 가정) / 봉헌금 \$297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062786 / Account Number: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김우경 가브리엘라 - 전례분과)

	8월 6일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	8월 13일 연중 제 19주일
독서	이상명 다니엘, 이명진 이사악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예물봉헌	요한반	루카반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6일) 요한반 → (13일) 루카반 → (20일) 마르코반 → (27일) 마태오반
- 미사 후 친교 (매월 첫째주 식사-청년들을 위한 김치나눔, 셋째주 간식): (6일-식사) 마태오반 → (20일-간식) 마태오반

□ 미사성가 안내 (가사/악보 보기, 듣기, 다운로드 - 링크 클릭)

	입당	예물	영성체	파견
8월 6일	72 타보르산의 예수	219 주여몸과맘다바치오니	504 우리와 함께 주여	77 주 천주의 권능과
8월 13일	329 미사시작	332 봉헌	498 예수여 기리리다	68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 백세현 레오와 이세인 율리안나의 첫 영성체를 축하합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소중히 간직하고 신앙 안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길 기도드립니다.  
 ♡ 김제인 글라라(초등), 이승아 클라라(고등), 이민정 글라라(마르코반), 김수현 수산나(요한반, 이상 11일), 안경록 도미니코(요한반, 8일)님의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